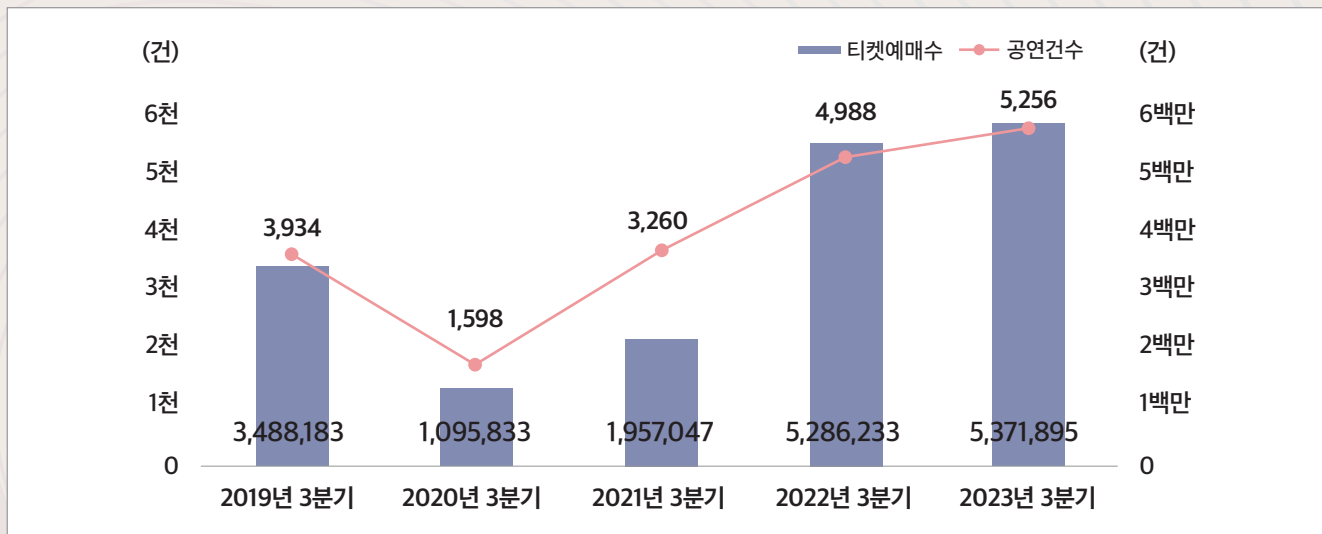


2023년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

kopis 조회일시: 2023.10.12(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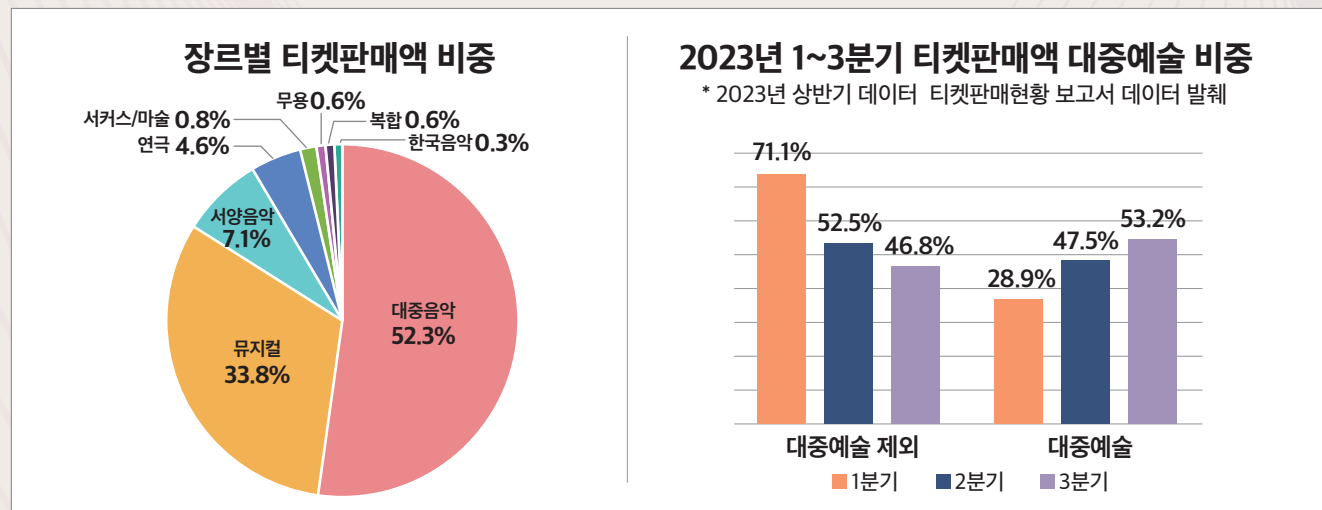
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에서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의 티켓판매 현황을 총9개 장르(연극, 뮤지컬, 서양음악(클래식), 한국음악(국악), 순수무용(서양/한국), 복합, 대중음악, 대중무용, 서커스/마술)를 기반으로 기간별, 지역별, 공연장 규모별로 분석하였습니다.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는 매일 단위로 예매·취소 값이 발생하는 공연예매데이터 특성으로 인해, 데이터 추출일자가 다를 경우, 결과값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19~2023년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및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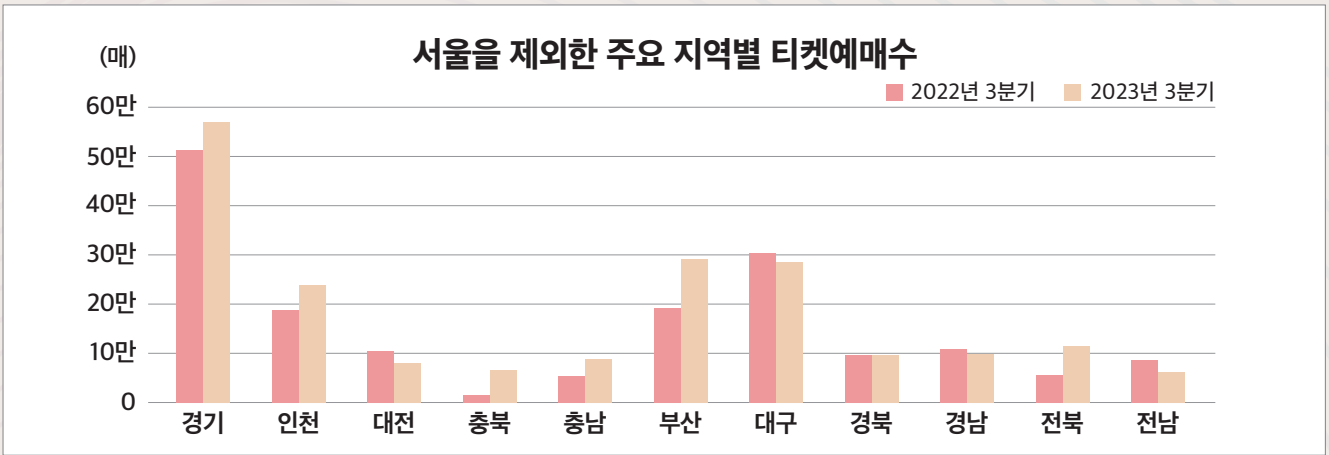
- 대중예술 포함한 9개 전 장르 티켓판매 현황은 공연건수 5,256건, 공연횟수 30,093회, 티켓예매수 약 537만매, 티켓판매액 약 3,27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.
- 대중예술을 제외한 연극, 뮤지컬, 서양음악(클래식), 한국음악(국악) 순수무용, 복합 6개 장르의 티켓판매 현황은 공연건수 4,253건, 공연횟수 26,232회, 티켓예매수 약 374만매, 티켓판매액 약 1,531억원입니다.
- 최근 3개년 3분기 공연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전년 동기 대비로는 공연건수 ▲5.4%, 공연회차 ▲10.6%, 티켓예매수 ▲1.6%, 티켓판매액 ▲7.5%로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.

더 커진 대중예술의 영향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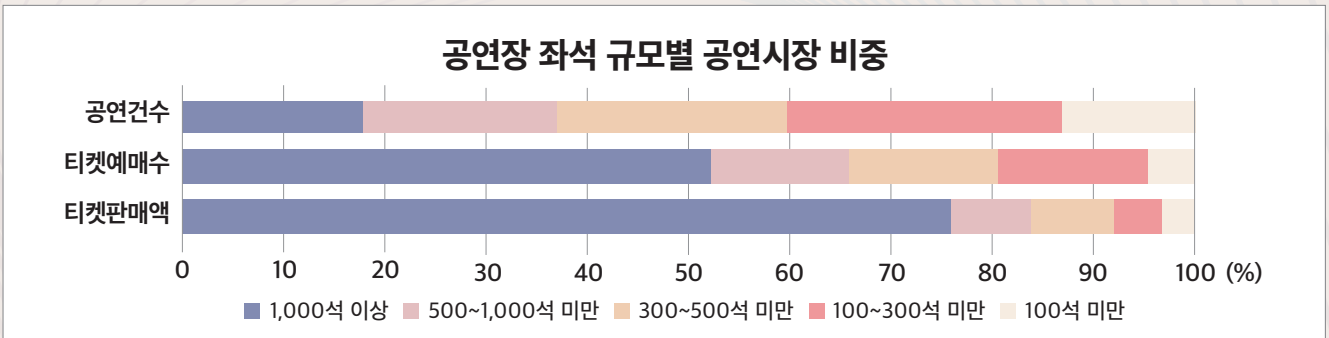
- 2023년 3분기 티켓판매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대중음악(52.3%)이었고, 뮤지컬(33.8%)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
- 대중예술이 2023년 전체 공연시장 티켓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28.9%, 2분기 47.5%, 3분기 53.2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- 이는 여름 브랜드 공연인 가수 '싸이'의 <흠뻑쇼>와 BTS 슈가, 블랙핑크, 세븐틴 등 아이돌 콘서트, 해외 가수 내한 공연 등이 대중음악 티켓판매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

지역별 티켓예매수 : 전북·충북 ▲ 대전·전남 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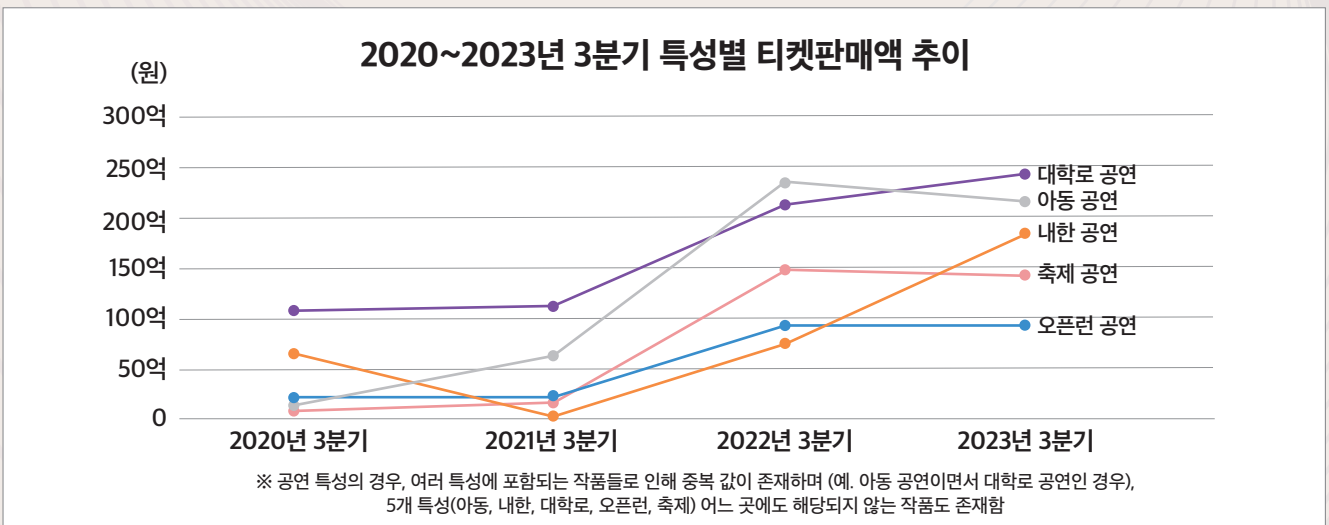
- 약 316만매로 압도적으로 높은 티켓예매수를 기록한 서울을 제외하면, 경기도, 부산, 대구 순으로 많은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.
- 지역의 티켓예매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북(▲83.1%) 과 충북(▲81.9%)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, 대전(▼30.3%)과 전남(▼20.8%)에서는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.
- 특히 대전은 전년 대비 공연건수가 약 ▲28% 증가했지만, 티켓예매수와 티켓판매액은 각각 약 ▼30%, 약 ▼57% 감소하여 공급 대비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갈목할 만한 성과의 증극장



- 가장 많은 공연이 이루어진 공연장 규모는 100~300석 미만 소극장(1,419건)이었으나, 티켓예매 및 판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연장 규모는 1,000석 이상의 대극장으로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.
- 좌석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티켓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1,000석 이상 대극장을 제외하면, 300석~500석 미만 중극장에서 티켓예매수(약 77만매), 티켓판매액(약 285억원) 모두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.

내한 공연의 폭발적인 인기



- 전년 동기 대비 티켓판매액이 증가한 특성은 내한 공연(▲134.8%)과 대학로 공연(▲15.1%), 오픈런 공연(▲1.9%)이며, 아동 공연(▼6.2%)과 축제 공연(▼2.5%)은 감소하였습니다.
- 특히, 내한 공연은 공연건수(▲174.6%), 티켓예매수(▲81.2%), 티켓판매액(▲134.8%)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